



유럽 중심으로 제고된 원자력에 대한 관심

1.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원자력에 대한 관심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천연가스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마찰로 유럽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 제고된 상황
-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도 강화된 모습
- 글로벌 우라늄 채굴 및 제련 기업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URA와 URNM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각각 +22.6%, +24.4% 급등

2. 유럽 중심 원자력 에너지 활용 확대 움직임

-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논쟁이 지속되면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 본격화
- EU의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20년 기준 89.7%. Non-EU 국가들 중 러시아의 비중은 43.4%로 상당 부분을 차지
- 프랑스를 비롯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원자력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3. COP26을 앞두고 주목해볼만한 원자력 관련 종목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필수적이라는 보고서 발간.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9개국 지지 성명 포함
- 글로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MSCI ACWI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 COP26 이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 가속화 전망.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자력 종목에 대한 관심 지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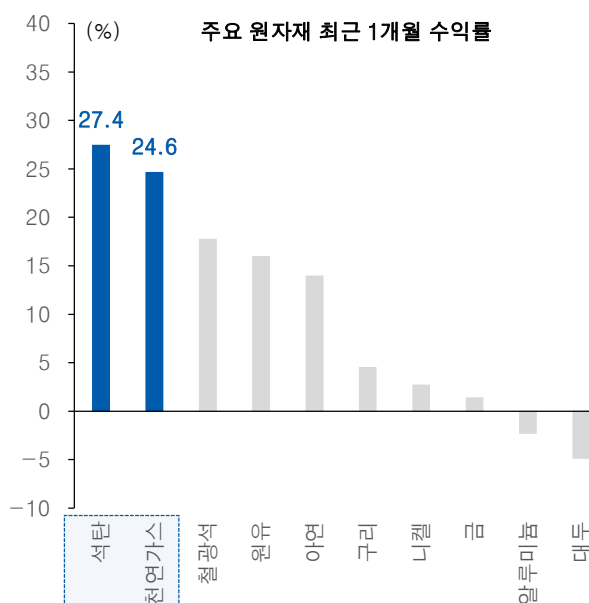
1.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원자력에 대한 관심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천연가스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마찰로 유럽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계절적으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11월 인도분 석탄과 유럽 천연가스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을 보면 +27.4%, +24.6%로 여타 원자재 대비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금 +1.4%, 알루미늄 -2.3%, 대두 -4.9%).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은 물론,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도 강화되는 등 시장에서의 반응도 꽤나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우라늄 채굴 및 제련 기업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Global X Uranium ETF(URA)와 North Shore Global Uranium Mining ETF(URNM)는 최근 1개월 기준 각각 +22.6%, +24.4%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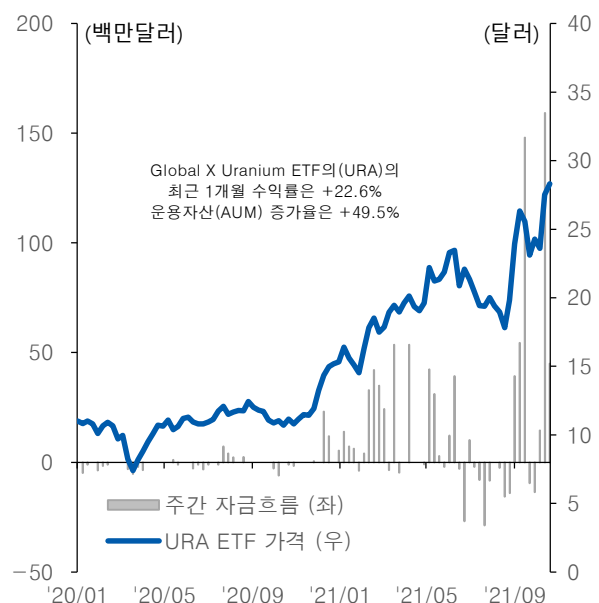
10월 들어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경제국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원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움직임과 더불어 관련 정책 시행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31일 향후 글로벌 환경정책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차트1] 최근 석탄, 천연가스 등 계절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의 수익률이 돋보이는 상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 11월 선물 기준

[차트2]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도 강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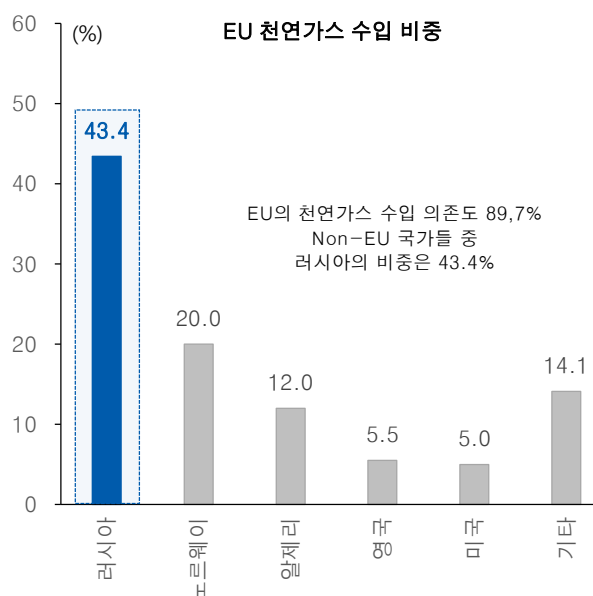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유럽 중심 원자력 에너지 활용 확대 움직임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논쟁이 지속되면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EU의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20년 기준 89.7%이며, Non-EU 국가들 중 러시아의 비중은 43.4%로 상당 부분이다. 푸틴 대통령의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의지에도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이 다음달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아직까지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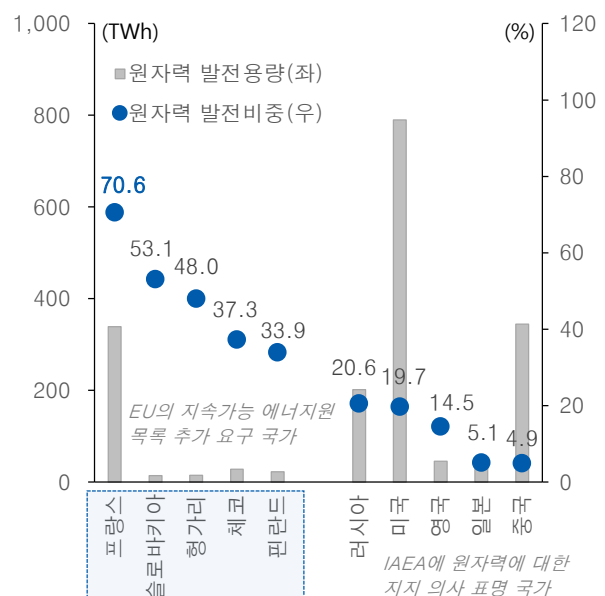
유럽 국가들은 1)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2) 제3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원자력 비중 70.6%)를 비롯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원자력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일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 10개국 경제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에 원자력을 EU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목록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12일 프랑스는 'France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자력 에너지 발전 및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에는 영국도 탄소배출 제로 계획의 핵심 발전원으로 원자력을 언급, SMR과 더불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 의지를 천명했다.

[차트3]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EU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음



자료: Eurosta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수입비중은 '20년 기준, Non-EU 국가 대상

[차트4]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활용 확대 위한 조치 마련 중



자료: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발전용량과 발전비중은 '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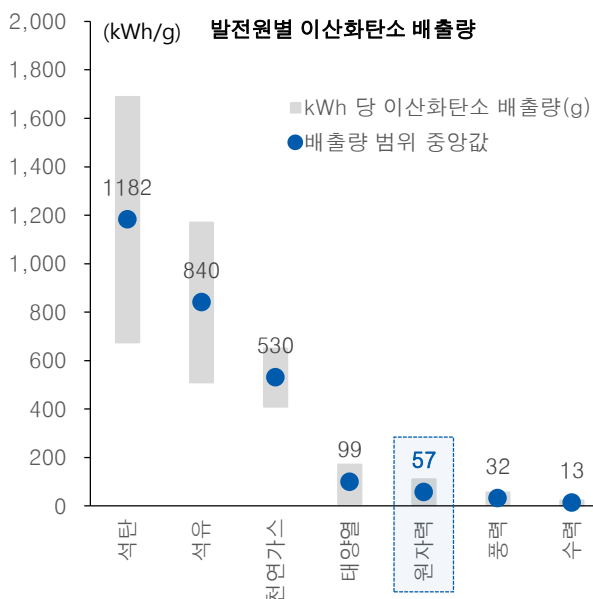
3. COP26을 앞두고 주목해볼만한 원자력 관련 종목들

COP26을 앞두고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AE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원자력을 새로운 발전원 중 하나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9개국의 지지 성명을 받았다. 실제로 발전원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원자력(57 kWh/g)은 풍력을 비롯한 여타 친환경 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량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vs 석탄 1182 kWh/g, 천연가스 530 kWh/g).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글로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도 MSCI ACWI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Cameco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26.1%이며 미국 내 주요 우라늄 개발 및 탐사업체인 Energy Fuels와 Uranium Energy도 한달 사이 각각 34.7%, +33.8%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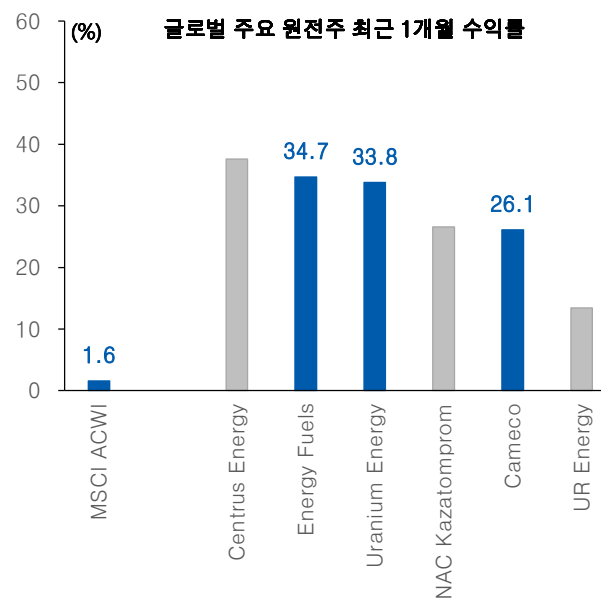
한편, 최근 주요국들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31일 예정된 COP26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차트5]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을 보면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 수준으로 배출량이 적은 모습



자료: IPCC, 유엔타중권 리서치센터, 주: 배출량은 직접 및 공급망 배출을 모두 감안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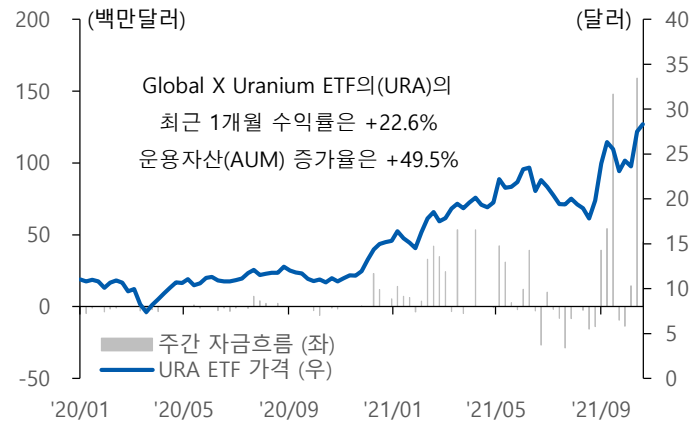
[차트6] 각국의 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주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 돋보이는 수익률 기록



자료: Bloomberg, 유엔타중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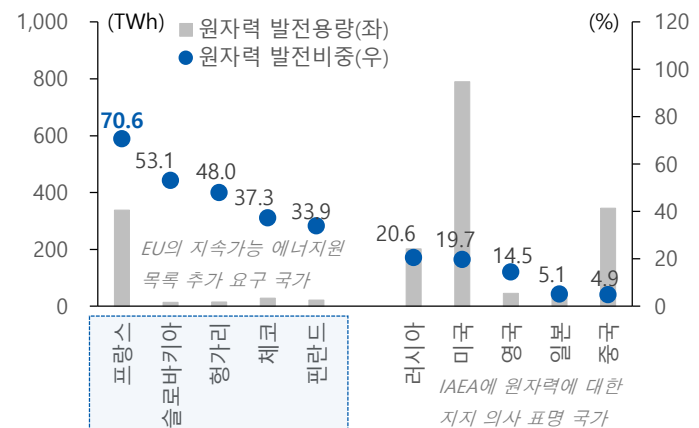
Key Chart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도 강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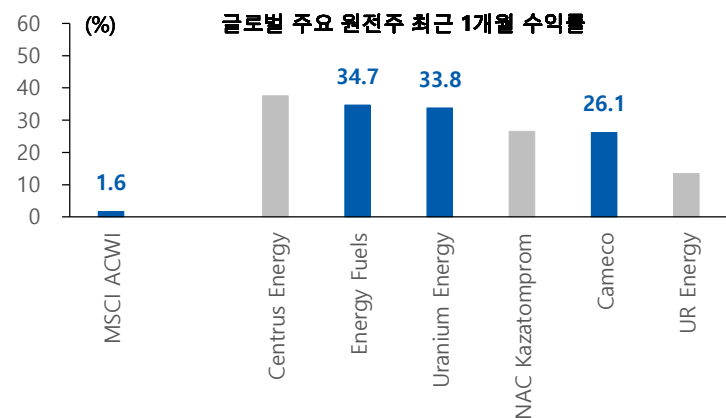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활용 확대 위한 조치 시행 중



자료: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발전용량과 발전비중은 '20년 기준

각국의 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주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 돋보이는 수익률 기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